광주 수완지구 명품 주거지 부상

'호남 최대 신도시'인 광주 수완지구가 광주의 신흥 주거명소로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현재 수완지구는 조경 등 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복합쇼핑몰과 학교 신축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광주 수완지구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호남권 최대 신도시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완지구는 오는 9월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복합쇼핑몰과 학교 등이 차례로 들어선다.

6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정률은 94%에 달한다. 12월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주택건축은 물론, 쇼핑·휴식·문화·교육·편의시설 조성이 급진전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등 편의시설 건축 '활기'**=수완지구의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복합쇼핑몰은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면적 7만4천168㎡ 규모의 복합쇼핑몰은 대형할인마트와 극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초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우선 오픈된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설은 연면적이 4만4천880㎡에 달하며, 농산물직판장과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2009년 9월 문을 연다.

◇**학교신축 및 녹지·조경공사 '박차'**=현재 수완지구에는 8개의 학교(초등 4곳, 중등 2곳, 고등 2곳)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 초등학교 1곳이 개교하며, 나머지 7곳은 6개월 뒤인 2009년 3월에 문을 연다.

조경 및 녹지조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완지구는 총 면적 460만3천51㎡의 22.7%(104만1천㎡)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만큼 '녹색 주거지'로 건설된다.

쇼핑몰·교육·교통망 갖춰
2만4천세대 대단위 단지
면적 23%가 녹지로 조성

조경공간의 경우 14개의 근린공원과 22개 어린이공원에 식재 및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공원 내 인라인롤러경기장도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택건설 1만4천320세대 … 신흥 주거중심부상**=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완지구 내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아파트부지는 전량 매각돼 21개 업체의 주택건축이 한창이다.

이들 업체는 1만4천32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특히 수완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550만원대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업·업무용지(72%), 근린생활용지(85%) 등의 택지공급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건물 신축 등 토지사용이 시작돼 수완지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수완지구는 단지 내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주변 도로망도 속속 확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단지 인근의 제2순환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수완~첨단지구를 잇는 광로 2-9호선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수완지구 서쪽의 국도13호선은 흑석사거리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퇴직인력 앞세워 재래시장 활성화

광주·전남중기청 퇴직 공무원 등 140명 투입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재래시장과 상점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체·유통관련 단체·기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퇴직인력 140여명을 재래시장 활성화 요원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처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 수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상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유인 및 시장 홍보방안 수립, 상인회 고유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시장상인회 상근인력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와 교육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퇴직인력에 대한 월급은 150만원"이라며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남평농협 '9988-봉사대' 농촌복지 대상

독거노인 목욕·김치 담가드리기 등 도와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 김병원)이 운영중인 '9988-봉사대'가 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농협문화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농촌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95년 수지침 봉사단으로 출발한 '9988-봉사대'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본격 출범했다.

188명의 봉사대원들이 205명의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목욕, 이·미용 봉사, 김치 담가드리기 등에서부터 건강검진, 사랑의 집짓기, 집 고쳐드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을 돌보고 경로잔치 등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도우미로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영농기 비료살포, 추수철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재금 봉사대 회장은 "노인들이 99세까지 88하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9988-봉사대'라는 이름을 부쳤다"면서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도 수출 우수中企 시상

대상에 (주)한영산업 선정

전남도 중소기업 수출대상에 해양구조물 전문 생산업체로 1천300만달러 수출실적을 거둔 (주)한영산업(대표 한 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6일 오후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인과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남도수출상 시상 및 2008년 수출진흥 연찬회'를 갖고 수출상을 시상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김 가공업체인 선일물산(주)와 선박건조 업체인 (주)광성조선이 우수상을, 갓김치·젓갈 생산업체인 남도명가김치와 파형강관업체인 (주)픽슨, 모터펌프 업체인 아륭기공(주), 김치업체인 왕인식품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나주배원협 박윤삼씨를 비롯 5명의 근로자와 공무원이 수출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충전식 부탄가스 '마니타' 출시

(유)물류와 사람들이 충전식 부탄가스 '마니타'〈사진〉를 출시했다.

'마니타'는 충전 전용 나사식 밸브를 적용, 기존 일회용 부탄가스의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강한 내압을 이용해 가스 잔량이 거의 없는 효율성을 지닌데다, 기존 제품에 비해 150원 저렴한 220g에 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941-7706.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